



## 『三國遺事』 「孝善」 篇의 어머니像을 통해서 본 孝의 의미

The Meaning of Filial Piety through Motherhood as Seen in “Filial Piety and Good Deeds” in Samkookyusa(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

저자 (Authors)	이강엽 Lee, Kang-yeop
출처 (Source)	<a href="#">우리말글 63</a> , 2014.12, 225-254 (30 pages) <a href="#">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3</a> , 2014.12, 225-254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우리말글학회</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146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1465</a>
APA Style	이강엽 (2014). 『三國遺事』 「孝善」 篇의 어머니像을 통해서 본 孝의 의미. <a href="#">우리말글</a> , 63, 225-25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2 11:2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三國遺事』 「孝善」篇의 어머니像을 통해서 본 孝의 의미\*

이 강 연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 차례 〉

1. 문제의 제기
2. 母性의 양면성과 孝
3. 『三國遺事』 「孝善」 편 어머니像의 편차와 孝의 의미
4. 마무리  
<참고문헌>

## 〈국문 요약〉

이 논문은 母性이라는 관점에서 『三國遺事』 「孝善」 편 孝의 의미에 대해 다루었다.

첫째, 母性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모신(The Great Mother)’은 생명뿐 아니라 죽음을 부여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성장/성숙’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됨직한데, 어머니가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한 배품이 바로 어머니의 ‘성숙’을 보증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

둘째, 『三國遺事』 「孝善」 편의 작품들 가운데 母性이 문제가 되는 네 작품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孫順 埋兒>, <貧女養母>의 편차에 대해 탐구했다. 우선, 네 작품 모두 ‘효성→효행의 장애→장애의 극복→보상’이라는 일정한 틀이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나 극복 방법, 보상의 내용 등이 달랐고, 특히 불교적 속성 때문에 여느 효

\* 이 논문은 2013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행담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개별 작품에서 孝의 실천 방법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살핀 결과, 먼저, 장애 극복을 주도하는 인물이 어머니인가 자식인가, 혹은 어머니와 자식이 합심하여 행하는가 자식의 단독 행위인가에 따라 <眞定>, <大城>, <貧女>, <孫順>의 순서를 보였다. 다음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의 합리성에 따라 <眞定>과 <大城>, <貧女>, <孫順>의 순서를 보였다. 끝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自力에 있는가 他力에 있는가에 따라 <眞定>, <大城>, <孫順>과 <貧女>의 순서를 보였다.

셋째, 孝와 善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孫順>과 <貧女>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慈愛가 표면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저 어머니를 편안히 봉양하게 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지만, <大城>은 자식의 뜻을 헤아리고 윤회전생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깨치는 悔過를 통해 수행으로 나아가며, <眞定>은 주저하는 자식을 강하게 이끌어 출가수행하게 한 결과 불교 전적의 완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까지 성취를 이루게 한다. <孫順>의 주인공이 어머니의 봉양에 급급하여 이상적인 相生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大城>과 <眞定>은 자식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자신도 성숙하게 되는 共同善을 이루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 주저어 : 삼국유사, 효, 효선, 모성, 대모신, 진정사효선쌍미, 대성효이세부모, 손순매아, 빈녀양모, 상생

## 1. 문제의 제기

孝는 유교윤리에서 인간됨을 가늠하는 제1의 척도였다. 이에 따라 유교를 신봉했던 전통사회의 산물인 고전문학에서 孝가 중심소재로 드러나는 일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리하여 가정을 떠나 求道生活을 하는 불교에서조차 孝를 강조하기에 이르러, 『父母恩重經』 같은 경전은 그 내용이 아예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설파하는 것이고 보면 적잖이 당혹스럽다.<sup>1)</sup> 불교의 수행은 出家가 기본이며 출가를 하게 되면

1) 이 경전은 僞書 시비가 불을 만큼 그 근원이 의심스러운 경우이지만, 불경이 아

부모 봉양과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 석가모니의 出家行에서부터 세인의 관심을 끌던 대목이기도 하여, 어떠한 논리로 설명을 하더라도 논란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 『三國遺事』가 있다. 이 책의 撰者 一然이 효자인 것은 익히 알려진 바이고, 실제 책 중의 한 편을 ‘孝善’이라고 이름붙일 만큼 孝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여기에는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 <孫順埋兒 興德王代>, <貧女養母>의 다섯 조목이 실려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는 불교설화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이야기이고, <孫順埋兒 興德王代>와 <貧女養母>에는 나중에 사찰을 지은 내용이 덧붙여져서 寺刹緣起說話 구실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외적으로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가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sup>2)</sup> 이 조목은 사실 『三國史記』에도 들어있는 데다 내용마저 소략해서 『三國遺事』에서 엄선하였거나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불교윤리를 중심으로 기술해야 할 撰者가 유교윤리가 분명한 孝를 들고 나온 까닭은 무엇이며, 그러한 입장에 선 까닭에 孝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僧/俗을 구분하는 것이 도식적이기는 하더라도 僧의 입장에서 俗의 윤리라 할 수 있는 孝를 다루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겠다. 기존연구사를 일별

---

니면서도 불경의 외피를 입고 경전처럼 유포되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은중경』(최은영 옮김, 흥익출판사, 2005개정판), 해제(11~39쪽) 참조

2) 민병하(1973),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인문과학』3·4권,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이미 「효선」편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것으로 취급한 바 있다. 우선, 나머지 넷과 달리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이야기이며, 왕과 연결되는 유교도덕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것으로, “아무리 불교적이고 유교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유교주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一然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것은 그대로 그 사회의 한 측면이기도 한 것”(237쪽)이라고 보았다.

해보아도, 불교적인 시각에서 孝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제에서부터 ‘불교의 孝 관념’을 내세우거나<sup>3)</sup>, 효선을 일종의 불교‘신앙’으로 보기도 하며<sup>4)</sup>, 『부모은중경』 같은 불교경전 내용과의 비교 작업<sup>5)</sup> 등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효선」 편 설화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입각한 것인 하는 점보다 더 크게 도드라진 문제는 그 효도가 아버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등장하는 <向得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는<sup>6)</sup> 실제로 서사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소략한 내용이고 보면 「孝善」편의 핵심은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나머지 네 작품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孫順埋兒 興德王代>, <貧女養母>의 주인공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지극 정성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흥미롭게도 그 효도를 받은 어머니의 像은 제각각이다. 효도 이야기를 부모의 施恩에 대한 자식의 報恩과 그 보은에 따른 보상으로 간략화한다 할 때, 그 시연의 성격도 각각이고 보은과 보상의 과정이나 방법 또한 상이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相生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三國遺事』 「孝善」편의 어머니 像을 탐구하여 그 효도의 의미에 대해 再考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母性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핀 후, 그를 토대로 『三國遺事』의 네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찬자가 ‘孝善’으로 편명을 잡은 데서 알 수 있듯이, 孝와 함께 강조하는 善의 실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이기백(1983), 「신라 불교에서의 효 관념-『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아연구』2,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4) 김두진(1983),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1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5) 노태조(2005), 「『부모은중경』과 『삼국유사』 효선 편 의 대비적 고찰」, 『불교문화연구』6, 한국불교문화학회.

6)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삼국사기』에서는 어머니 봉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경우 아버지/어머니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듯하다.

## 2. 母性的 양면성과 孝

한국인의 뇌리에 강하게 떠오르는 어머니像은 아무래도 賢母型이다. 울곡을 길러낸 申師任堂이나 이문열의 소설 『선택』에 등장하는 貞夫人 張氏 등은 내심 바람직한 인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표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도 신사임당賞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남편의 내조를 잘했고, 자식들을 모두 잘 길러냈으며, 병든 시어머니 수발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서예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다.<sup>7)</sup>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자면, 이문열이 『선택』을 쓴 까닭에 여성단체에서 ‘1997년 여성 권익의 걸림돌’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러한 대단한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이른바 현모양처를 내세워 여성의 삶을 질곡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 더 정확하게는 여성 스스로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여성상과 남성이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여성상의 양 갈래를 구분해보게 된다.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자아 실현의 욕망’이 있는 반면,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자식들은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가정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여성상을 원하는 것이다. 이 점은 남성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굴레를 쓰고 분투하는 점에서 엇비슷하게 전개된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그 희생의 정도에서 여성과 비교하기 어렵다. 여성의 욕망과 희생은 현대의 사회문화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훨씬 이전에 생성된 ‘大母神(The Great Mother)’의 속성에서부터 파생되는 매우 뿌리 깊은 전통이다.

신화적으로 볼 때 “여성성의 중심적 상징은 그릇(vessel)이다.”<sup>8)</sup> 그릇은 무엇을 담아내는 容器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무언가를 배

7) 『BreakNews』, 2013.4.11.

8) 에리히 노이만(2007) 저, 박선화 역, 『위대한 어머니 여신 *The Great Mother*』 살림, 61쪽.

태하여 적절하게 끄집어 낼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숨기고 가둘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對極은 필연적으로 兩價性을 동반하는데, 전자의 기능으로 “출산하고 방출하는 것은 기초적 성격의 긍정적 측면”<sup>9)</sup>에 속한다면 후자의 기능으로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고착하고 방출하지(놓아주지) 않은 기능에서 보면 위대한 어머니는 매우 위험하다.”<sup>10)</sup> 부모-자식 관계로 설명하자면 한편으로는 자식을 잘 보듬어 양육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이 자신을 떠나 큰 세상으로 떠나는 성장을 방해하는 형국인 것이다. 이 점에서 “위대한 어머니는 생명뿐 아니라 죽음의 부여자이다.”<sup>11)</sup>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내지는 독립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자식이 어머니 안에 매몰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성숙’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설명될지하다. 어머니가 자식이라는 생명을 잉태하여 세상에 내보내게 되면 성장을 하여 어머니 품을 떠나야 정상이며, 역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식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어머니가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한 배품이 바로 어머니의 ‘성숙’을 보증하는 표식이기도 하다. 즉, 자식이 ‘성장’하도록 배품으로써 자신은 ‘성숙’하는, 자식과 부모의 아름다운 相生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어머니가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는 어머니의 미숙함의 징표로서, 자식과 부모가 사실상 相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식의 성장과 어머니의 성숙이 함께 일어나는 共同善이야말로 모자간에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母性을 이야기할 때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배풀어주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신화 전통에서만 보

9) 에리히 노이만, 같은 책, 96쪽.

10) 에리히 노이만, 같은 책, 97쪽.

11) 에리히 노이만, 같은 책, 99쪽.

아도 이런 통념은 쉽게 무너진다. 가령, 중국의 西王母 같은 경우,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맹수와 결합한 위협적인 형상이다. “그 형상이 사람 같지만 표범의 꼬리에 호랑이 이빨을 하고 휘파람을 잘 불며 더부룩한 머리에 머리꾸미개를 꽂고 있다. 그녀는 하늘의 재앙과 五刑을 주관하고 있다.”<sup>12)</sup>고 기술될 만큼 무서운 존재이다. 실제로 서왕모는 전염병과 형벌을 관장하는 신이었으며 동시에 不死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袁珂의 지적대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으므로 당연히 또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sup>13)</sup>는 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여성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母性 이미지의 원형이라 하겠다. 인도의 깔리 신 역시 그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여신은 혀를 낼름거리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생명을 요구하는 표시이다. 특히 뱀갈 지방에서는 깔리를 위대한 모신으로 모시며 희생제의를 펼친다. “깔리 여신은 자신의 여성적 본성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모성적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를 상쇄시킬 만한 부정적인 측면, 즉 생겨난 생물들을 다시 붙잡아 삼켜버리는 파괴의 기능을 되풀이한다.”<sup>14)</sup>

요컨대 치유하는 존재이면서 죽이는 존재, 낳는 존재이면서 먹어 삼키는 존재라는 이중성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여성신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하겠는데, 많은 신화 속의 母性이 그러한 이중성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서사 전통에서 흔히 두 인물로 분리되어 드러나기도 하는데, 『라퐁첼』 같은 데에서 친모는 ‘보호해주는 선량한 모성’ 형상으로, 마녀는 ‘가두는 어두운 모성’으로 대립되어 나타난다.<sup>15)</sup> 그리고 이렇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엄마’像은 현대에 와서도 수그러들지

12) 정재서(1985) 역주, 『山海經』, 민음사, 85쪽.

13) 袁珂(1982) 저, 전인초·김선자 옮김, 『중국신화전설 I』, 민음사, 474쪽.

14) 이은구(2003),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225쪽.

15) 지빌레 비르크호이저-웨리(2012) 저, 이유경 역,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 연구소, ‘제7장 가두는 마녀: 『라퐁첼』’(160~182쪽) 참조.

않고 있어서 “여러 특질들을 묶은 하나의 구성적 이미지”로 규정되기도 한다.<sup>16)</sup> 이부영이 잘 정리한 대로 “우주를 이루고 아이를 잘 낳게 하고 어린이를 병에서 지켜주는 위대한 모성은 또한 때로는 아이를 그녀의 과보호로, 혹은 무관심과 거절로 상처 입히고 창생과는 역으로 파괴와 질식과 오도할 위험성을 지고 있다.”<sup>17)</sup>

이제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母性和 孝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는 명료해진다.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자식을 양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압도할 만한 힘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식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공생과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다.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어머니의 양육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최상의 愛着 관계를 형성하다가, 독립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어머니의 품을 떠나 독자적인 삶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과업이 실패한 경우 “어머니와의 공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퇴행 욕구”나 “삶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공생이라는 낙원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sup>18)</sup>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도리어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식이 어머니에게 孝를 한다 할 경우,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매우 당연한 보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맹목적이거나 희생적인 孝가 수반될 경우, 자식을 압도하는 힘에 대한 굴복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 유교윤리의 외피를 입은 孝가 작동하고, 그 효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국가가 개입한다면 상당히 변이가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相生과 犧牲 사이를 오가는 선택의 기

---

16) Erik H. Erikson의 견해로, 특히 ‘어머니’가 아닌 ‘엄마’로 번역될 범한 아동과의 관계망 속에서 그 모순이 극명히 드러난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동화에서의 ‘엄마’ 형상화 문제를 다룬 연구로 이상진(2001),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형상화와 성 역할 문제」, 『여성문학연구』,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참조.

17) 이부영(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211쪽.

18) 김영진(2001),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황금가지, 108~109쪽.

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부모에게 있는 두 가지 성격, 곧 페이터(pater)적 성격과 제니터(genitor)적 성격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요긴한 준거가 된다. 페이터적 부모는 사회화를 통해 공동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는 부모의 훈육에 순종하여 사회질서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진다. 반면 제니터적 부모는 원칙이나 약속 앞에 자녀와 상호평등적인 관계를 이루며 부모자식 간의 사랑과 애정이 중시된다.<sup>19)</sup> 전자가 '사회학적 부모'에 뿌리를 둔다면 후자는 '생물학적 부모'에 뿌리를 두는 것인데, 양자 간의 우열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 둘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부모라면 그 두 역할을 견실하게 행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등 인간관계 제반에 두루 통용될 만한 보편성을 갖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孝가 부모/자식의 共同善을 지향하는 相生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효행담에서는 선뜻 수궁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발견된다. 가령, 異蹟을 동반하는 효행담에서 뒷부분에 담긴 상식 밖의 보답을 떼어놓고 본다면 앞부분의 孝行은 일상적인 善行의 범위를 넘어 苦行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잦아서 선뜻 수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비전통에서 보자면, 가난한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식을 묻거나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유형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sup>20)</sup>, 어려운 가운데 부모를 봉양하느라 애를 쓰는 이야기<sup>21)</sup> 또한 상당히 널리 퍼져있다.

이 점에서 『三國遺事』 「孝善」편에서는 비록 작품의 편수는 적어도 어머니의 역할이 또렷이 드러나는 작품에서 그렇지 못한 작품까지 고루 드

19) 이에 대해서는 박철호(2010), 『효학의 이론과 실천』, 한국학술정보, 2010, 76~77쪽 참조.

20)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유형분류상 '433-1. 자식 죽여 부모 받들기(희생효 이야기)'가 그런 예이다.

21)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천년두골에 쌍용수, 지렁이 반찬)'형 등등.

러나면서 독특한 의미를 집어낼 만하게 배치되어 있다. 가령 <眞定師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의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三國遺事』만의 독특한 효행담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즉, <孫順埋兒 興德王代>나 <貧女養母> 등첩 기존의 효행담을 빌려와 불교적인 내용을 살짝 엮는 수준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내용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더구나, <孫順埋兒 興德王代> 같은 埋兒 이야기는 정조 21년(1797)년에 간행된 『五倫行實圖』에서도 누락될 만큼 儒敎 세계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했다.<sup>22)</sup>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孝善」 편에 실린 네 작품 또한 그 母性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성과 긍정성을 양 끝에 두고 일정한 스펙트럼을 그려갈 것으로 짐작되며, 거기에 따라 효행주체인 자식과의 관계 및 孝의 의미가 새롭게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 3. 『三國遺事』 「孝善」 편 어머니像의 편차와 孝

#### 1) 『三國遺事』 「孝善」 편의 자료 개관

효행담은 효도를 하여 어떠한 결과를 빚어내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간단하게는 “자식이 늙으신 부모를 섬기는 태도에 얽힌 이야기”로 정의 내려지며, “치사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효도는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만 실천에는 늘 장애가 동반된다. 그래서 지극한 효성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sup>23)</sup>는 식으로 의미가 정리될 수 있다. 본

22) “『오륜행실도』 刪定諺解本 『삼강행실도』의 효행고사를 계승하면서도 유교이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효행고사를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던 <郭巨埋子>나 할아버지를 버리고 온 아버지를 깨우친 <元覺警父>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수경(2004), 「朝鮮時代 孝子圖 -行實圖類 孝子圖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42:243, 한국미술사학회, 205쪽.

23) 김대숙(2013), <효행담>조,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819쪽.

래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그 일을 해낸 뒤에는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성→효행의 장애→장애의 극복→보상'이라는 일정한 틀이 유지된다고는 해도 장애의 종류나 극복 방법, 보상의 내용 등에 따라 편차가 있음은 물론, 장애를 극복하는 인물이나 보상의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三國遺事』 「孝善」편의 경우는, 그 불교적 속성이 작용한 까닭이 크겠지만, 여느 효행담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sup>24)</sup>

논의를 위해 먼저 각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眞定師 孝善雙美>는 이렇다.

- #1. 진정은 집안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하고 부역하는 틈틈이 일을 해 어머니를 봉양했다.
- #2. 다리 부러진 솔이 재산의 전부였으나 어머니는 그것을 시주했다.
- #3. 진정은 어머니가 시주한 것을 잘했다고 했다.
- #4. 진정은 태백산에 의상법사가 있는데 효도를 끝내면 출가하겠다고 했다.
- #5. 어머니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출가할 것을 종용했다.
- #6. 진정이 밭치대자 어머니는 쌀 일곱 되를 다 털어서 주먹밥을 지어 한 덩이는 즉시 먹고 나머지는 싸서 길을 떠나도록 채근했다.
- #7. 진정이 세 번을 사양한 끝에 길을 떠나 의상 법사의 제자가 되었다.
- #8. 출가한 지 3년 만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진정은 7일간 入定하였다.
- #9. 의상법사가 이 말을 듣고 제자들과 화엄경을 강설하였고 제자 지통은 그를 바탕으로 『椎洞記』를 썼다.
- #10.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자신은 이미 하늘나라에 태어났노라고 말했다.

다음은 <大城孝二世父母>이다.

- #1. 대성은 가난한 여자 경조의 아들로 태어났다.
- #2. 대성을 부잣집 복안의 머슴으로 들여보냈고, 그 집에서는 밥을 내주었다.

---

24) 가령, 『三國史記』 「列傳」의 <孝女知恩>에는 『三國遺事』의 <貧女養母>에 있는 兩尊寺를 세웠다는 대목이 없다. 대신 이 일을 전한 효종량을 현강왕의 사위로 삼았다는 뒷이야기를 덧붙여놓고 있다.

- #3. 복안이 짐개에게 시주했고, 짐개는 만 배로 받는다는 축원을 했다.
- #4. 대성은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받을 시주할 것을 청했다.
- #5. 어머니는 대성의 뜻에 따라 짐개에서 시주했다.
- #6. 대성이 죽어 재상 김문량의 집에 환생하여, 경조를 모셔다 봉양했다.
- #7. 대성은 사냥을 즐겼는데, 어느 날 꿈에 자기가 죽인 곰이 나타나 질책했다.
- #8. 대성은 사냥을 그만두고 곰을 잡은 터에 장수사라는 절을 지었다.
- #9.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다.
- #10. 석불사를 짓는데 천정이 세 조각이 났으나 천신이 내려와 완성해주었다.

<孫順埋兒>는 다음과 같다.

- #1. 손순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머슴살이를 했다.
- #2. 손순의 아이는 매번 할머니의 음식을 뺏어 먹었다.
- #3. 손순은 아내에게 아이를 물어 없애 어머니를 배부르게 하자고 했다.
- #4. 부부는 아이를 업고 취산에 올라 땅을 파다가 기이한 돌종을 발견했다.
- #5. 부부는 돌종을 나무에 걸어두고 쳐보니 소리가 은은했다.
- #6. 부부는 그 종이 아이의 복으로 여겨 종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 #7. 대들보에 걸린 종소리가 대궐에까지 들렸다.
- #8. 왕은 신하를 시켜 종소리가 나는 곳을 찾게 했다.
- #9. 왕은 연유를 듣고 손순에게 집 한 채와 매년 벼 50석씩을 내렸다.
- #10. 손순은 옛집에 절을 세워 ‘弘孝寺’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돌종을 모셨다.

끝으로, <貧女養母>이다.

- #1. 효종랑이 포석정에서 노는데 두 명이 늦게 왔다.
- #2. 효종랑이 그 사람들에게 왜 늦었는지 묻자 자신이 본 광경을 이야기했다.
- #3. 어떤 여자가 집이 가난하여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했다.
- #4. 여자는 흉년이 들어 구걸도 어려워지자 몸을 팔아 곡식 30석을 받았다.
- #5. 여자는 받아온 곡식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해드렸다.
- #6. 어머니가 전보다 좋은 밥인데도 마음이 불편하다 하자 사실대로 말하였다.
- #7. 어머니는 그 말에 통곡하고 딸은 마음을 받들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 #8. 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느라 늦었다고 말했다.
- #9. 이 말을 들은 효종랑은 곡식을 보내주었고 郎徒들도 쌀을 보내주었다.
- #10. 임금은 곡식과 집을 내려주었으며 정문을 세우고 그 마을을 ‘孝養里’라 했으며, 뒷날 그 집터를 희사하여 ‘兩尊寺’가 되었다.

이 네 이야기는 ‘孝善’ 편에 실린 만큼 모두 말 그대로 효도와 선행이 어우러지는 이야기이다. 개념의 범주로 살펴보면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작품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지칭하는 善이 다분히 불교적인 데 귀착되는 인상을 준다. 이는 맨 처음에 배치한 <眞定師 孝善雙美>의 題名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효와 선이 쌍으로 아름답다”고 명시함으로써 善을 孝와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의 善은 眞定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 공부에 정진한 가특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三國遺事』 「孝善」 편은 孝와 善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2) 어머니의 역할과 孝의 실천 방법

네 편의 이야기에 드러나는 장애는 모두 다 가난이다. 부모를 잘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그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다. 실화나 구비설화의 많은 효행담에서 부모님의 병이나 위급한 상황 등이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데 비해서 『三國遺事』 이야기 네 편은 매우 간단한 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장애를 극복하는 인물이나 방식 등에 있어서 네 작품은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장애 극복을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眞定>과 <大城>은<sup>25)</sup> 어머니와 자식이 합심하여 문제해결에 나서는데 반해, <孫順>과 <貧女>는 자식만이 나설 뿐 어머니는 방관하거나 문제의 내막을 전혀 모른다. 또, 전자는 <眞定>은 어머니가 먼저 나서고(#2) 자식이 뒤따르는(#3) 순서인 데 반해서 <大城>은 자식이 먼저 나서고(#4) 어머니가 따르는(#5) 순서이다. 만일 孝 또한 여느 윤리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부모와 자식에게 共同善으로 인식될 만한 相生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차이는 시사하는 바

25) 이하 이야기 단락 표시 등을 위해 <眞定>, <大城>, <孫順>, <貧女>로 약칭하고, 서사단락은 ‘<眞定>#1’의 형식으로 표기함.

가 크다. 신분이나 지위가 세습되는 사회에서 가난의 문제는 윗대부터 내려오는 누적된 결핍이지 아랫대가 잘못하여 파생된 새로운 문제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효행담은 자식들이 미안함을 넘어 죄 의식까지 갖는 등 특이행동을 연출한다.

이런 점을 헤아려서, 이왕이면 부모와 자식 모두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적어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만이라도 성인인 부모가 제공해줄 수 있다면 효도가 강요되는 희생으로 비취질 염려는 적을 것이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자식만이 나서는 두 작품의 경우도, 어머니가 자식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안쓰러워하기라도(#6, #7) 하는 <貧女>와, 초지일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자식의 행위를 아예 의식도 하지 못하는 <孫順>은 그 정도가 다르다.<sup>26)</sup> 이런 맥락에서라면 어머니가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적극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보인다: <眞定>, <大城>, <貧女>, <孫順>.

이러한 차이는 결국 네 작품에 펼쳐진 어머니像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眞定>의 어머니는 자식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독려하며 복돋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5, #6). <大城>의 어머니는 <眞定>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식의 적극적인 행동에 동조함으로써(#5) 당대는 아니어도 다음 생에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준다. <貧女>의 어머니는 앞의 두 어머니와 달리 자식의 짐이 되는 경우이지만 최소한 자식이 몸을 팔았다는 데 대해 가슴 아파할(#7) 줄 아는 어머니이다. <孫順>의 어머니는 작품 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26) ‘자식 희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선뜻 납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화적 맥락에서 일종의 제의로 설명해보려거나 종교적인 문제로 해명해보려는 시도가 있으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현실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논의는 심우장, (2007),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110, 실천민속학회 ; 김영희(2012), 「한국 구전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 『고전문학연구』41, 한국고전문학회 ; 신호림(2014),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43, 우리문화회 등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않고 오직 부족한 음식 때문에 자식을 걱정하게 하고 또 비극적 사건을 빚어내게 하는 인물이다.<sup>27)</sup> 제 몸을 판 지은이나, 자식을 묻고자 한 손순의 경우 그 孝가 과연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지를 되묻게 한다.<sup>28)</sup>

둘째,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이다. 효행에 장애가 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향방이 갈린다. 간단하게 둘로 나누자면 <眞定>과 <大城>은 남의 집 품팔이를 하고, <孫順>은 식구수를 줄이기 위해 자식을 죽이려 하며, <貧女>는 구걸을 하다 종살이를 택한다. <眞定>, <大城>, <貧女>의 경우는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어머니를 잘 봉양하려 했던 데 비해 <孫順>은 자식이 제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다. 또, <眞定>, <大城>, <貧女>도 다소간의 편차가 보이는데, <眞定>과 <大城>은 자신의 노동력에 따른 품값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비해, <貧女>는 구걸을 하거나 아예 자신의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장애를 극복함에 있어 그 합리성의 정도에 따라 네 작품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보인다: <眞定>과 <大城>, <貧女>, <孫順>.

이러한 차이 또한 母性的의 향방을 알리는 좋은 표지가 된다. 모성은 근본적으로 자식을 잉태하여 낳고, 적절히 기르며, 길러서 떠나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잉태하여 낳는 과정이 자식이 어머니에게 속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적절히 기르는 과정은 자식이 어머니를 떠날 준비를 하는 성장의 과정이고, 기른 후 떠나보내는 과정은 자식이 어

---

27) 이 작품은 구비설화로 유포되는 <童子蓼>이나 <孝感虎>에 비해도 “원인부분이 약하고 결말부분은 비현실적이다. 이야기의 출발과 도달점이 빠져버린다는 점이 이야기의 전승력을 죽인 결과가 된 것 같다.”(김대숙(1998), 「문헌소제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학회, 26쪽)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8) 정신의학자인 조두영은 중국과 한국 고전에 나오는 효자와 효녀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효’란 효의 대상에 대한 주인공의 공격성이 피학성을 표출되는 것”이며 “피학적 성격의 효도를 행하는 이유는 섬기는 대상에게 갖는 공격성을 억제하는 부정과 반동형성이라는 자기방어기제가 작용하기 때문”(조두영(1999), 『프로이트와 한국문화』, 일조각, 379쪽)으로 보았다.

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과정이다. 이런 견지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은 그 중 둘째 단계에 해당한다 하겠는데, 이 단계의 성패는 자식을 ‘적절히’ 제어하고 지도하여 잘 성장시킴으로써 독립된 개체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眞定>의 경우만은 멈칫대는 자식을 다그치기도 하는 등 제한을 통한 훈육 역할에 충실한 반면 나머지 작품들은 그에 부족함이 많다. <大城>의 어머니는 자식의 행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貧女>의 어머니는 자식의 구걸에 의지할 만큼 양육조차 부족하지만 공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孫順>의 어머니는 어떠한 역할도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장애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 또한 네 작품을 가르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眞定>에서는 아들이 의상의 제자가 되어 불법을 닦은 결과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갔으며, <大城>에서의 어머니는 재상집으로 환생한 아들 덕분에 부잣집으로 가서 잘살았고, <孫順>은 임금이 내려준 곡식으로 잘살았으며, <貧女> 또한 효종랑과 낭도, 임금이 내려준 곡식과 의복 등으로 부유하게 살았다. 네 작품 모두 효성이 작동한 결과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된 점이 공통적이지만, 초지일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타개해나가는 <眞定>과 자신의 노력 덕분에 윤회하여 다음 기회를 얻는 <大城>과, 자신의 효성을 누군가가 알아줌으로써 부자가 되는 <孫順>과 <貧女>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自力과 他力の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고 母性の 특질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母性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북돋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이야기에서는 하늘의 보살핌이나 助力자가 없었더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게 설정되어 있다. 즉,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眞定>은 초지일관 自力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6에서 보듯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이르도록 하는 데 비해서,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大城>은 일단 윤회를 한 다음 새로운 인물이 되어 깨침을 얻으며, 감정적으로만 자식에게 동감하는 <貧女>의 경우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함

으로써 문제가 풀리며, 자식에게 어떠한 교감도 보이지 않는 <孫順>의 경우는 땅에서 나온 돌종이 울리는 신비한 종소리에 의해 임금에게 알려져서 문제를 해결한다.<sup>29)</sup>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에서 초월적인 도움까지 촘촘히 놓이는 중심에 母性的 개입이 놓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孝와 善의 관계

삼국시대부터 孝는 중요한 교육내용이었다. 國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여 이른바 讀書三品科의 상·중·하 품을 나누는 기준 가운데 『孝經』이 공통과목이어서<sup>30)</sup> 결국 효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재로 등용될 수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그 종교적 수행에 있어서 出家를 기본으로 하는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孝의 실천에 장애가 발생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그 둘을 접합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三國遺事』 「孝善」 편 역시 그 중 하나로 보인다. 가령,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向得(德)과 知恩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유교적 입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불교 또한 효도를 숭상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三國史記』 「列傳」의 <孝女知恩>은 효종왕이 知恩 모녀의 慘狀을 보고 곡식을 내리고 왕 또한 곡식을 내린 후 마을 이름을 孝養坊으로 하게 한 후, 효종왕을 왕의 조카사위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三國遺事』 <貧女>는 “그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리라 했다. 그 후에 집

29) 실제로 埋兒型 이야기가 『고려사』나 조선조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가 설득력이 약하다는 성격 때문에 구비전승의 세계에서는 동자삼이나 호감호 등에 밀려나고 후대의 기록에도 오르지 못했다.”(김대숙, 앞의 논문, 26 쪽)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30) “여러 학생들은 글을 읽은 다음 세 등급으로 관직에 등용되는데 『춘추좌씨전』이나 『예기』나 『문선』을 읽어서 그 뜻을 통달하고 아울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이가 상등이 되고, 『곡례』와 『논어』와 『효경』을 읽은 이가 중등이 되며, 『곡례』와 『효경』을 읽은 이는 하등이 되었다.” -『三國史記』, 「雜誌」 제7, 김부식 (1998) 저, 이강래 역, 『삼국사기II』, 한길사, 717쪽.

을 회사하여 절로 삼고 兩尊寺라고 했다.”<sup>31)</sup>는 대목이 添記됨으로써 『삼국사기』의 일반적인 孝와는 거리를 둔다. 효도를 하여 복을 받았다는 여느 효행담의 결말에 불교적 善行을 덧붙인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三國史記』의 <孝女知恩>이 列傳體를 충실히 따르는 까닭에 주인공의 소개부터 시작하는 데 반해 『三國遺事』에서는 효종랑 이야기가 앞뒤로 붙어서 흡사 액자 형식으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에서 놀 때 손님들이 급히 모여들었으나, 두 사람만이 뒤늦게 와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었다.”<sup>32)</sup>는 대목은, 뒤에 서술되는 貧女 모녀의 이야기와 강한 대비를 이룬다. 즉, 화랑이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손님들은 지체 없이 모여드는 광경과 심한 낙차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일반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몸을 팔아야 하는데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한가하게 연회를 열고 또 그 소식이 들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모인다고 했으니 여기에서부터 撰者의 시각이 강하게 들어갔다 하겠다.

결국 그 말을 들은 효종랑은 곡식 1백 斛을 보내주었고, 부모도 의복을 보냈으며, 낭도 천여 명은 추렴하여 쌀 1천 석을 보냈고, 이 일이 궁궐에 알려지자 왕이 곡식 5백 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고 병사들을 보내 그 집을 지키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나친 보상이다. 당시 정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1품의 최고 관원이 받는 녹봉이 연간 400석이었던다는 기록<sup>33)</sup>을 참조하면 합리적으로 수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 “효도의 미담이 언제나 해피 엔

- 
- 31) 旌其坊爲孝養之里，後捨其家爲寺，名兩尊寺。-『三國遺事』, 「孝善」, <貧女養母>  
 32) 孝宗郎遊南山鮑石亭，門客星馳，有二客獨後。-『三國遺事』, 「孝善」, <貧女養母>.  
 33) 신라시대 녹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허균이 <厚祿論>에서 “신라시대 녹은 1품이 연간 4백 석이나 고려조에서 절반이 되었는데 이는 서울에 관원이 넘쳐났기 때문이며, 우리 왕조에 와서 관원이 3배로 넘쳐나자 녹이 3분의 2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봉록에 모자람이 생겼다.(新羅芝祿則一品一年四百 王氏半之 蓋以官濫於東京也。至我朝濫官三倍 而祿不得不削削三之二 而俸則缺矣.)”고 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데, 400석 또한 고려조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데에서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허균(1980), 「樞叟覆瓿藁」 권11, 『許筠全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27쪽.

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효’ 그 자체보다도 더 많은 비판점을 내포하고 있다.”<sup>34)</sup>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자식이 구걸해서 얻어온 음식을 먹으면서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일해서 벌어들인 음식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등,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곤란한 점들도 발견된다.<sup>35)</sup> 부모의 마음이 편하기만 하면 자식의 마음이 편하다는 식의 사고가 孝 사상에는 부합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대 간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서든 풀어야 할 숙제인데, 합리적인 相生策이 모색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할 때 문제는 증폭된다. 더욱이 난세일 경우라면 어느 일개인의 희생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이다. <孫順>조의 시대배경이 되는 흥덕왕 때를 예로 들자면, 매우 어려웠던 시절임이 분명하다. “5월에 서리가 내렸다. 8월에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보이고 서울에는 큰 한재가 들었다.”(2년), “3월에 눈이 3척이나 쌓였다.”(3년), “봄·여름에 한재가 들어 赤地가 되었으므로 왕은 정전을 피하여 계시고” “9월부터는 기근이 심하여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7년), “봄에 국내에 큰 기근이 들었다.”, “10월에 桃李의 꽃이 다시 피고 백성들이 나쁜 병으로 많이 죽었다.”(8년), “6월에 孛聖이 동쪽으로 흘러갔다. 7월에 太白星이 달을 범하였다.”(11년) 天災地變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이런 현실에서 효도, 그것도 자식의

34) 이어령(2003),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118쪽.

35) “효의 어려움과 딜레마는 재미있다. 어머니를 배불리 먹고자 고된 일을 하면, 어머니의 입은 편할지 모르나, 마음은 편안치 않을 것이다. 마음이나 일이 나…… 빈녀가 울 수밖에 없다. 리얼리티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걸식하는 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노동(폼팔이)로 정당하게 쌀을 벌어들인 딸에게는 가슴 아파한다는 사고방식은 참으로 기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걸식보다는 폼팔이가 힘이 들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걸식을 시킬망정 힘 드는 노동은 시키지 않겠다는 그 사상은 얼마나 가공할 일이나. 더욱이 피땀 어린 노동을 해서 바친 백성의 세금인 500석을 그 ‘빈녀’에게 효의 대가로 내린 임금의 사고방식 역시 기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도 임금도 맹목적인 정감(情感)의 소유자이다.” - 이어령, 위의 책, 120쪽.

일방적 희생에 의한 효도만을 통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撰者는 손순이 살던 옛집을 喜捨하여 弘孝寺라는 절을 삼았다는 내용을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불교적 수행을 하는 善業과 연관해둠으로써 종교적 해결의 실마리를 남겨두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貧女>와 <孫順>은 자식의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孝 이야기에 후일담 같은 사찰 창건 설화를 결부하며 孝와 善이 연결되도록 한 이야기이며, 그로써 「孝善」편에 들어갈 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금 등으로부터 내려 받은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를 시주한 데 지나지 않아 불교에서 말하는 善을 제대로 감당해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점에서 <大城>은 주인공이 직접 절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이야기와 차별성을 보인다. <大城>#8에서는 자신의 殺生한 데 대한 과오를 뉘우치는 과정에서 속죄를 위해 절을 지으며, #9에서는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 직접 절을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하늘의 도움으로 石窟庵을 완성해내는 과정이 극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大城>은 단순히 孝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孝와 善을 아우르는 지점을 포착해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 김대성이 자신의 잘못을 깨치고 불교에 귀의한 데 비해 보자면 어머니는 그저 좀 더 편안한 衣食住를 제공받았을 뿐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共同善으로는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 또한 자신의 수행을 통한 부모님의 濟度로, 『父母恩重經』에서는 불경의 편찬을 권하고 있다.<sup>36)</sup> 효도를 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경전

36)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부모님을 위하여 경전을 거듭 펴내도록 해라. 그것이 진실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한 권을 만든다면 한 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열 권을 만든다면 열 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백 권을 만든다면 백 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천 권을 만든다면 천 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만 권을 만든다면 만 분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이 경을 지은 業力으로 여러 부처님들이 항상 보호하여 그 부모님도 천상에 태어나 모든 즐거움을 받고 영원히 지

을 펴내는 일인데 이는 그로써 부모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孫順>이나 <知恩>에서 나중에 자신의 집이 佛寺가 되도록 喜捨했다거나, <大城>이 힘써 스스로 佛寺를 지은 것만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善에 온전히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이 보인 효도를 통해 얻어진 것은 부모님을 좀 더 잘 봉양하게 되었다는 것일 뿐 부모가 깨침을 얻었다거나 해탈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眞定>에 가면 #9에서 『椎洞記』라는 불교 典籍이 이루어지며, #10에서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함으로써, 부처가 강조하는 최고의 善, 최고의 孝가 완성되는 장면이 연출된다.<sup>37)</sup>

이 네 작품은 결국 부모자식 간의 쌍방 윤리인 자식의 孝와 부모의 慈愛가 다 드러나는가와, 궁극적인 성취를 통해 부모와 자식의 共同善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스펙트럼을 이룬다. 먼저, <孫順>은 자식에 대한 慈愛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손순의 老母가 자식에 대해 보인 특별한 애정이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 부부가 老母 앞에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부모임이 분명한데 매정하게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제 스스로 허벅지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한 向得 類의 이야기와도 또 다른 국면이다. 적어도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희생을 자처한 내용은 부처의 本生經에 나올 정도로 정형화된 것이지만<sup>38)</sup>, 이른 바 ‘童子

---

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최은영 옮김,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앞의 책, 71~72쪽.

37) 이 점에서 義湘 法師의 사상 가운데 한 축으로 ‘孝善雙美思想’를 드는 것은 우연한 일만은 아닌 듯하다. 眞定이 의상의 제자이고 보면, 진정이 효도를 다한 후에 출가한 후면 너무 늦다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출가하여 수행함으로써 더 큰 효도를 하게 된다는 설정이야말로 유교와 불교의 접합점으로 매우 매혹적인 일일 터이다. “아들이 출가하지 않아 善을 이루지 못하게 된 원인이 孝, 즉 어머니에게 있다면, 어머니가 惡業에 빠짐으로써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속세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봉양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가 아니며, 출가가 오히려 효도로 되었다.” - 김두진(1995),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260쪽.

38) 이에 대해서는 『大方便佛報恩經』의 「孝養品」, 최은영 옮김, 앞의 책, 99~118

蓼 이야기'類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일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지극한 효도로 포장하기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에는 항상 두 여성이 등장하는데, 손주의 목숨을 원하는 할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자식의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이다. 어느 경우이나 자식을 압도하는 母性으로서의 음험함이 드러난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慈愛를 베풀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굳이 그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순서는 아마도 慈愛에서 孝道로 옮겨가는 것이 순리이겠다. 그러나 보다시피 <貧女>이나 <孫順>에서는 일방적인 효도만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폭력'이 되고 만다.<sup>39)</sup>

이런 불합리한 효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이 있어왔다. 실례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向德과 聖覺이 모두 제 허벅지 살을 베어 부모를 봉양했는데, 이에 대해 편찬자 김부식은 唐의 韓愈가 이미 그 부당함을 의논한 바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항간의 고루한 자로서 학술이나 예의의 소양은 갖지 못하면서도 능히 자기 몸을 희생해 부모에게 바친 것은 정성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역시 칭찬할 만하므로 기록해둔

---

쪽 참조. 여기에서는 부왕인 아버지가 먹을 것이 떨어져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부인을 잡아먹으려 하자, 아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신 희생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제석천이 태자에게 “너는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려서 몸의 피와 살을 부모님에게 공양하였다. 이와 같은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나 마왕·범왕·천신왕·사람의 왕·전륜성왕이 되리라.”(115쪽)고 한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서사화가 덜 된 작품으로 논외로 한 <向德舍知割股供親 景德王代>의 경우, 불교의 捨身施와 관련하여 연구한 사례(최정선(2005),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10, 불교학연구)가 있으며, 신희림(2014), 『犧性孝에 화소의 불교적 수용맥락과 의미-』 『三國遺事』 「孝善」 편에 나타난 割股, 埋兒, 賣身 화소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서는 희생효 화소의 불교적 수용맥락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39) “이 이야기들은 효의 이념을 존중하여 이를 회의 없이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지만, 이를 통해 윤리가 상호성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그것은 도덕이 아닌 폭력의 형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기숙(2001), 『어린 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54쪽.

다.”<sup>40</sup>)라는 식의 제한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런가 하면 丁若鏞은 <孝子論>에서 증세도 모르면서 똥맛을 보는 등 효도를 했다는 명예를 취하려는 듯한 假飾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자식 희생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舊約聖書』의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이야기 또한 그 핵심이 자식을 희생으로 바쳤다는 게 아니라 “이 전승이 인신 희생 제사를 폐지하고, 동물희생으로 대체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입장”<sup>41</sup>)이 공감대를 얻는다.

효도가 인륜에 바탕을 두기 위해서는 윗세대와 아랫세대에게 두루 善이 되는 지점이 포착되어야 함은 당연한데, 향간에 떠도는 효행담은 실제의 미담이든 설화이든 그 점에서 미흡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효행담 745건을 분석해보면, 부모가 病患과 관계된 경우가 전체의 약 35%인 261명이며 그 가운데 무려 斷指가 200회, 割股가 32회, 嘗糞이 16회 등이어서<sup>42</sup>) 모범사례로 꼽는 효행담이 대체로 日常의 孝와는 거리가 먼 극단적인 경우이다. 미국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동양의 효를 연구하면서, 중국에서는 공자와 맹자 이래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제시되어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효는 자녀의 역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것도 자녀들에게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효가 이 시대에 부합하려면 상호적 관점에서 사랑의 감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은<sup>43</sup>) 새겨보직하다.

물론, <貧女>에서 보듯이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이른바 ‘養志’는 孝의 기본으로 여겨졌고 부모가 강압을 한 것도 아닌 자녀의 자발적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모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자식이 미리 헤아려 그에 맞추어 효행을 하려 할 때 실제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sup>44</sup>) 미국의 어느 학자가 미국과 일본의 자녀 교육을 비교

40) 김부식(1998) 저,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II』, 한길사, 855~856쪽.

41) 박정세(1996), 『성서와 한국민담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24쪽.

42) 이에 대해서는 오영석(2000), 『孝學概論』, 엘멘, 291~292쪽 참조.

43) 캔더(Edward T. Canda) 교수의 견해로, 김종두(2011), 『효의 패러다임과 현대적 개념』, 명문당, 124쪽에 정리되어 있다.

44) 조두영은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이중구속 메시지(double-binded message)’로

한 결과에 따르자면 미국이 명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반면 일본은 부모의 감정이 잘 전해져서 그에 따르기를 원하는 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 형태는 이른바 “조숙한 아이들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의존적인 관계의 특징이다.”<sup>45)</sup> 결국, 아이를 아이답게 하는 길은 어른이 어른답게 되는 데 있다. 어른이 어른의 구실을 제대로 함으로써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내적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孫順>과 <貧女>의 어머니는 많이 부족하다. 다만 <孫順>에서 石鐘을 발견하고는 하늘의 뜻을 구실삼아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만류한다거나 <貧女>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勞役을 불편해 하는 데에서 자식의 희생에 대한 아픈 마음을 보이는 정도이지만, 자식을 윗대의 삶을 연장하는 기능으로만 여기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가부장제 질서에 예속된 현상이기도 하지만<sup>46)</sup>, 기실은 본래적인 모성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제의적 살해가 효도와 결부되면서 빚어진 변형으로 볼 만한 것이며, 거기에 불교적 깨침이라는 종교 주제가 뒤엉키면서 다소간 복잡한 양상을 펼쳤다 하겠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자식을 도와 자식이 목표를 이루고 그 결과 어머니가 더 편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거나, 나아가 성취를 이루는 <大城>과

---

설명한다. 가령, 어린 심청이가 아버지 대신 동냥을 다니겠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로 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조두영, 앞의 책, 373쪽 참조.

45) 사이토 사토루(2002 개정판) 저, 이규은 옮김,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종문화사, 175쪽.

46) 犧牲孝의 母性에서 가부장적 모순을 지적한 논의는 정경민(2012), 「자녀희생효 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참조. “이 설화 유형에서는 모성에 대한 설화의 이중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성은 여성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본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기대와 그런 모성도 여성에게 부과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당위가 그것이다. 이는 곧 가부장적 모순이다.”(34~35쪽)

<眞定>은 세대간의 相生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이 둘에는 자식들의 목숨이 위협당하거나 乞食으로 내몰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서, 생활 속의 孝를 통해 共同善을 이루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孝와 善의 雙美는 일연스님만이 품었던 이상은 아닐 것이다. 앞세대와 뒷세대가 서로 돕고 북돋우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의 어떤 윤리도 相生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4. 마무리

이 글은 母性이라는 관점에서 『三國遺事』 「孝善」편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유교윤리의 전통 사회에서 孝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出家修行을 기본으로 하는 불교윤리와의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난 母性像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첫째,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母性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사회의 賢母像은 사실은 특정한 문화적 특성에 투영된 모습이어서, ‘대모신(The Great Mother)’부터 살펴보면, 위대한 어머니는 생명뿐 아니라 죽음의 부여자로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시 ‘성장/성숙’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됨직한데, 어머니가 자식이 제대로 ‘성장’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한 베품이 바로 어머니의 ‘성숙’을 보증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 문제는 孝가 共同善을 지향하는 相生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三國遺事』 「孝善」편의 작품들 가운데 母性이 문제가 되는 네 작품 <眞定師 孝善雙美>, <大城孝二世父母>, <孫順 埋兒>, <貧女養母>의 편차에 대해 탐구했다.

우선, 네 작품 모두 ‘효성→효행의 장애→장애의 극복→보상’이라는 일

정한 틀이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나 극복 방법, 보상의 내용 등이 달랐고, 특히 불교적 속성 때문에 여느 효행담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孝善」 편에 실린 만큼 모두 말 그대로 효도와 선행이 어우러지는 이야기로 볼 때, 孝와 善의 연계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관건이다. 다음으로, 개별 작품에서 孝의 실천 방법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살폈다. 첫째, 장애 극복을 주도하는 인물이 어머니인가 자식인가, 혹은 어머니와 자식이 합심하여 행하는가, 자식의 단독 행위인가에 따라 <眞定>, <大城>, <貧女>, <孫順>의 순서를 보였다. 둘째, 장애를 극복하는 방식의 합리성에 따라 <眞定>과 <大城>, <貧女>, <孫順>의 순서를 보였다. 셋째, 장애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自力에 있는가 他力에 있는가에 따라 <眞定>, <大城>, <孫順>과 <貧女>의 순서를 보였다.

셋째, 孝와 善의 관계에 대해 살폈다. <孫順>과 <貧女>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慈愛가 표면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저 어머니를 편안히 봉양하게 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지만, <大城>은 자식의 뜻을 헤아리고 윤회전생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깨치는 悔過를 통해 수행으로 나아가며, <眞定>은 주저하는 자식을 강하게 이끌어서 처음부터 출가수행의 길을 모색한 결과 불교 전적을 만드는 계기를 통해 중생구제에 이르러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까지 성취를 이루게 한다. <孫順>의 주인공이 어머니의 봉양에 급급한 나머지 이상적인 相生에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大城>과 <眞定>은 자식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자신도 성숙하게 되는 共同善을 이루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흔히 효행담이 그 효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을 극단화함으로써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적절한 균형과 공생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담아낸 『三國遺事』 「孝善」 편은 소중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서사 전통에서는 도리어 <孫順> 같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은 향후 살펴볼 만한 문제이다.

## 참고문헌

- 김부식(1998) 저,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 김대숙(2013), <효행담>조,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 \_\_\_\_\_ (1998),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학회, 21~46쪽.
- 김두진(1983),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1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95), 『義湘,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 민음사.
- 김영진(2001),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황금가지.
- 김영희(2012), 「한국 구전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 『고전문학연구』41, 한국고전문학회.
- 김종두(2011), 『효의 패러다임과 현대적 개념』, 명문당.
- 노태조(2005), 「『부모은중경』과 『삼국유사』효선 편의 대비적 고찰」, 『불교문화연구』6, 한국불교문화학회, 155~191쪽.
- 민병하(1973),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인문과학』3·4권,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9~239쪽.
- 박정세(1986), 『성서와 한국민담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박철호(2010), 『효학의 이론과 실천』, 한국학술정보.
- 신호림(2014),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43집, 우리문화회, 159~190쪽.
- \_\_\_\_\_ (2014), 「犧性孝에 화소의 불교적 수용맥락과 의미-『三國遺事』 「孝善」편에 나타난 割股, 埋兒, 賣身 화소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6쪽.
- 오영석(2000), 『孝學概論』, 엘랜, 2000.
- 이기백(1983), 「신라 불교에서의 효 관념-『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동아연구』2, 서강대학교동아연구소, 29~40쪽.
- 이부영(1995),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 이상진(2001), 「한국창작동화에 나타난 ‘엄마’의 형상화와 성 역할 문제」, 『여성문학연구』6, 한국여성문학연구학회, 375~401쪽.
- 이수경(2004), 「朝鮮時代 孝子圖 -行實圖類 孝子圖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42·243, 한국미술사학회, 197~224쪽.
- 이어령(2003), 『신화 속의 한국 정신』, 문학사상사.

- 이은구(2003), 『인도의 신화』, 세창미디어.
- 일연, 『三國遺事』, 「孝善」
- 정경민(2012),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2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5~43쪽.
- 조동일 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 I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조두영(1999), 『프로이트와 한국문화』, 일조각.
- 최기숙(2001), 『어린이 이야기, 그 거세된 꿈』, 책세상.
- 편자미상, 최은영(2005) 역, 『부모은중경』, 홍익출판사.
- 허균(1980), 『許筠全書』,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 사이토 사토루(2002) 저, 이규은 역, 『아버지가 변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중문화사.
- 에리히 노이만(2007) 저, 박선화 역, 『위대한 어머니 여신 The Great Mother』, 살림.
- 정재서(1985) 역주, 『山海經』, 민음사
- 최정선(2005),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 불교학연구, 147~170쪽.
- 袁珂(1992) 저, 진인초·김선자 역, 『중국신화전설 I』, 민음사.
- 지빌레 비르크호이저-왜리(2012) 저, 이유경 역, 『민담의 모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 이강엽

- ☎ 소 속 :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 주 소 :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 전화번호 : 053-620-1312(연구실)
- ☎ 전자우편 : kylee@dnue.ac.kr

-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2일
- ◎ 논문심사 : 2014년 11월 21일 ~ 2014년 12월 12일
- ◎ 게재결정 : 2014년 12월 26일

<Abstract>

## The Meaning of Filial Piety through Motherhood as Seen in “Filial Piety and Good Deeds” in Samkookyusa(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Lee, Kang-yeop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his thesis treats the tales in “Filial Piety and Good Deeds” in Samkookyusa from the perspective of motherhood.

First, I have examined the image of motherhood. ‘The Great Mother’ is duplicitous, giving not only life but also death. And it is explained in the framework of ‘growth/maturity’. If a mother sees to it that her child ‘grows’ well and starts an independent life, such provision would serve as a sign that guarantees the maturity of the mother.

Second, I have studied differences among ‘Buddhist Monk Jinjeong’s Filial Piety and Good Deeds Are Beautiful’, ‘Kim Dae-seong Fulfills His Filial Piety for Two Generations of Parents’, ‘Sohn Sun Buries His Son’, and ‘A Poor Woman Takes Care of Her Mother’, the four pieces treating motherhood of all the titles included in “Filial Piety and Good Deeds” of Samkookyusa. To begin with, all of the four pieces partake of the clear framework: ‘filial piety → obstacles to fulfillment of filial piety → overcoming obstacles → compensation’. Yet, they differ in specific type of obstacle, ways to overcome them, and specifics of compensation, with especially their Buddhist characteristics registering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ypical tales of filial piety fulfilled. I have surveyed the four titles for the ways to fulfill filial piety and the role of a mother. First of all, in examining the tales, I have questioned whether it is the mother or the

child that leads the overcoming of obstacles or whether it is a concerted act of the mother and the child or the child's independent act. And the tales have come in the order of 'Jinjeong', 'Daeseong', 'Poor Woman', and 'Sohn Sun'. Next, with regard to the ways to overcome obstacles and rationality, the tales have come in the order of 'Jinjeong', 'Daeseong', 'Poor Woman', and 'Sohn Sun'. Lastly, when the tales are examined to see whether the decisive factor in overcoming obstacles is a person's own ability or some other power, they have come in the order of 'Jinjeong', 'Daeseong', 'Sohn Sun', and 'Poor Woman'.

Third, I have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lial piety and good deeds. 'Sohn Sun' and 'Poor Woman' in which the mother's affection for the child is not visibly treated, has their focus on providing comfortable care for the mother. Whereas, 'Daeseong' shows how a child's intention is correctly understood and how a character progresses to attainment through repentance of errors, which consists in realizing one's errors through metempsychosis in the eternal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And 'Jinjeong' begins by pursuing the path toward the Buddhist priesthood and practice of asceticism and practices salvation of humankind through joining the Buddhist priesthood until at last he ensures the mother's achievement. While the main character of 'Sohn Sun' overly focuses on taking care of his mother and thereby fails to achieve coexistence, 'Daeseong' and 'Jinjeong' convincingly demonstrates how one achieves maturity by helping the child's growth.

Keywords : Samkookyusa, Filial Piety, 'Filial Piety and Good Deeds', motherhood, The Great Mother, 'Buddhist Monk Jinjeong's Filial Piety and Good Deeds Are Beautiful', 'Kim Dae-seong Fulfills His Filial Piety for Two Generations of Parents', 'Sohn Sun Buries His Son', 'A Poor Woman Takes Care of Her Mother', coexistence.